



▲ 고종실록 권 10(1875년) : 1852년 제주목에서 두 부분으로 분리된 제주목의 고종실록 권 10(1875년) 제주목의 고종실록 실전의 보물 목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

1. 오경이란?

구약성경
목차를 보면 제일 먼저
'오경'이란 이름 아래
다섯 권의 성경이
나열되어 있어요.

즉 창세기,
탈출기, 레위기,
민수기, 신명기
다섯 성경을 묶어
오경(五經)이라 부르죠.

오경 두루마리,
16세기 초 필사,
성서와함께 소장.

오경을 다섯
메시지의 차이와
보완상의 필요로
다섯 두루마리로
나누었다고 해요.

유다교에서
이 토라를 반드시
지켜야 할 삶의 지침,
법으로 삼았기에
흔히 '율법서'라고
번역되고 있어요.

히브리말로
오경을 '토라'라고
부르는데요, 말뜻은
권위 있는 가르침
또는 교훈이죠.



오경 각 권의 이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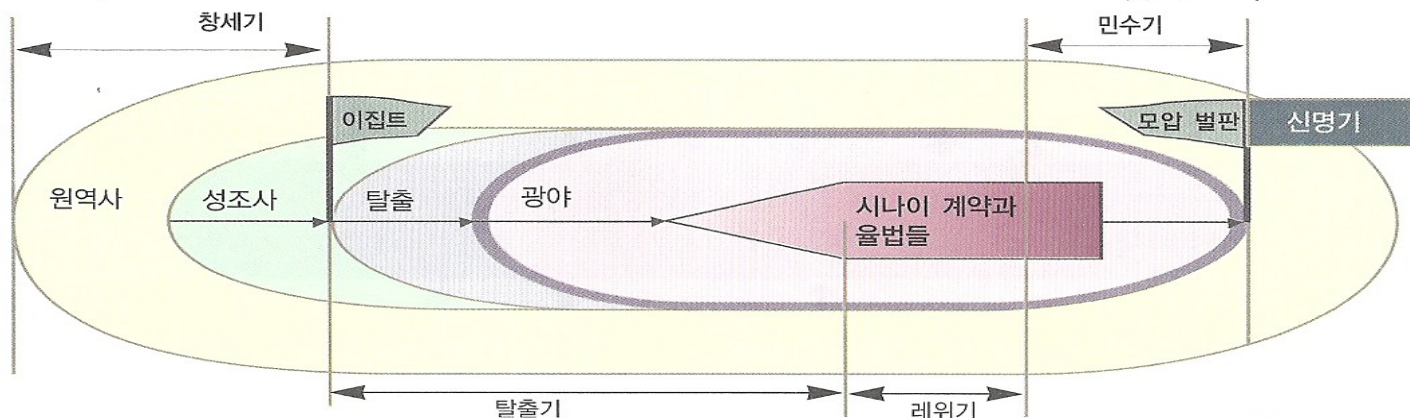
히브리말	그리스말	우리말
한처음에	기원	창세기
이름들	탈출	탈출기
부르시고	레위인들의 법	레위기
광야에서	인구 조사	민수기
말씀	두 번째 율법	신명기

4. 오경의 구성과 내용

오경은 한 덩어리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.

창세기는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를 다룬 원역사(1-11장)와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의 선택과 역사(12-50장)를 적고 있어요. '시작의 책'인 창세기는 오늘 우리 삶의 근본을 일러 주고 있지요.

민수기는 시나이에서 받은 율법들(1,1-10,10)과 광야 체험기(10,11-36장)로 짜여 있어요. 광야에서 하느님을 불신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화되어 하느님의 백성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담겨 있지요.



탈출기는 아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이야기(1-15장)와 광야 체험기(15-18장),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과 율법, 성막 이야기(19-40장)로 짜여 있어요.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누구이며, 그분의 뜻과 말씀, 그분과의 계약관계 등이 밝혀져 있어 오경은 물론 구약의 핵심 성경이라 할 수 있죠.

레위기는 모두 시나이 산에서 받은 율법 규정들이죠. 무척 재미없고 지루한 성경 같지만,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하느님의 뜻이 백성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일러 주신 경신례 규정들이기에 참 중요하죠. 신약의 전례와 연결시켜 보면 한층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어요.

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별판에서 행한 설교예요.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내신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기억하며, 그 사랑에 충실하게 응답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지요.

느보산에서 바라본 요르단



창세기의 구성(원역사)

[구 성]

(1) 한 처음 이야기 - 원 역사 (1-11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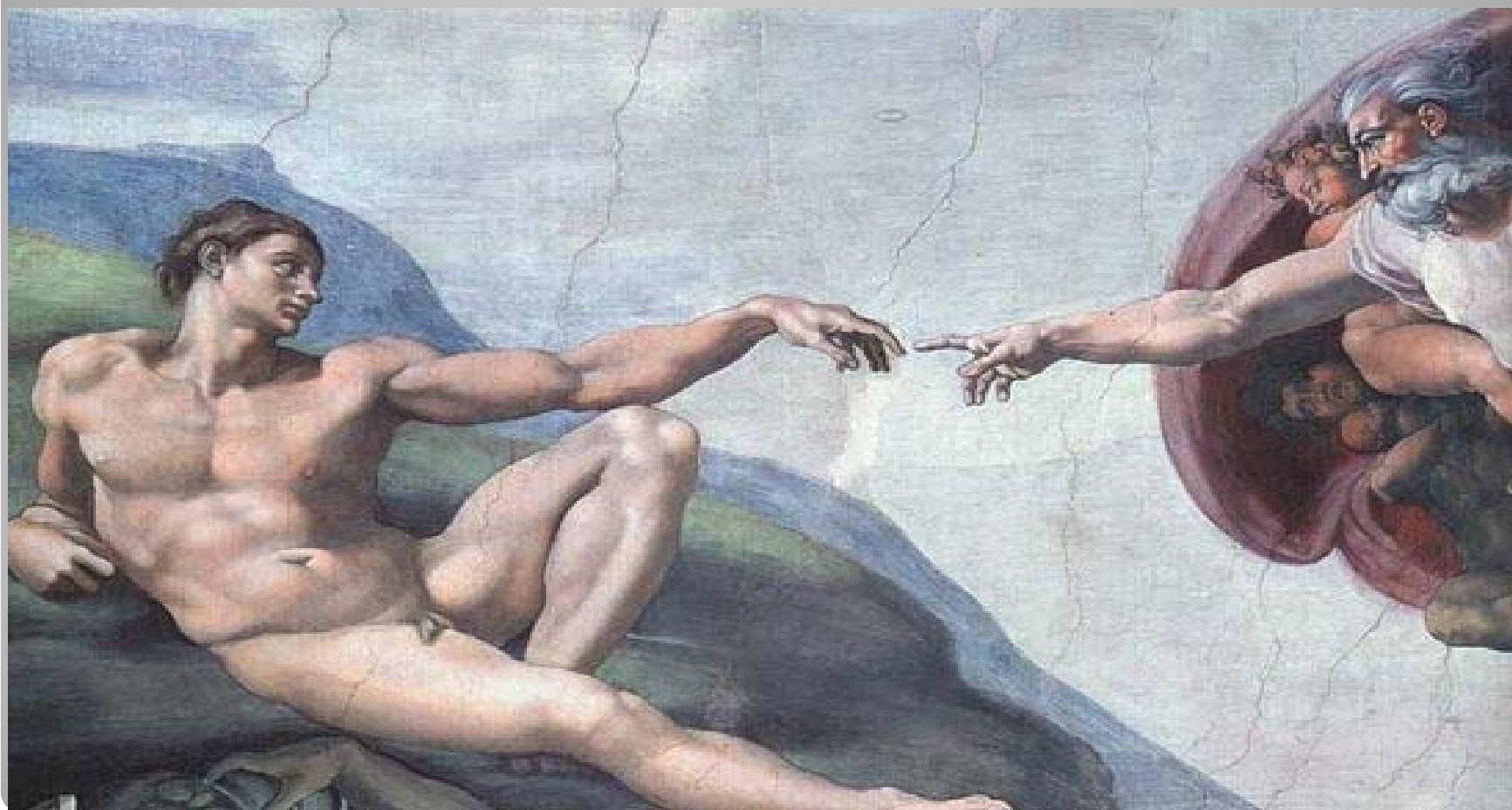
- 1) 우주만물과 인간창조 및 하느님의 쉼(1,1-2,4a)
- 2) 남녀의 창조와 에덴동산, 인간의 범죄(2,4b-3,24)
- 3) 카인의 범죄(4,1-16)
- 4) 홍수 및 노아와의 계약 (6,1-9,17)
- 5) 노아의 저주와 축복(9,18-29)
- 6) 바벨탑(11,1-9)

창세기의 구성(성조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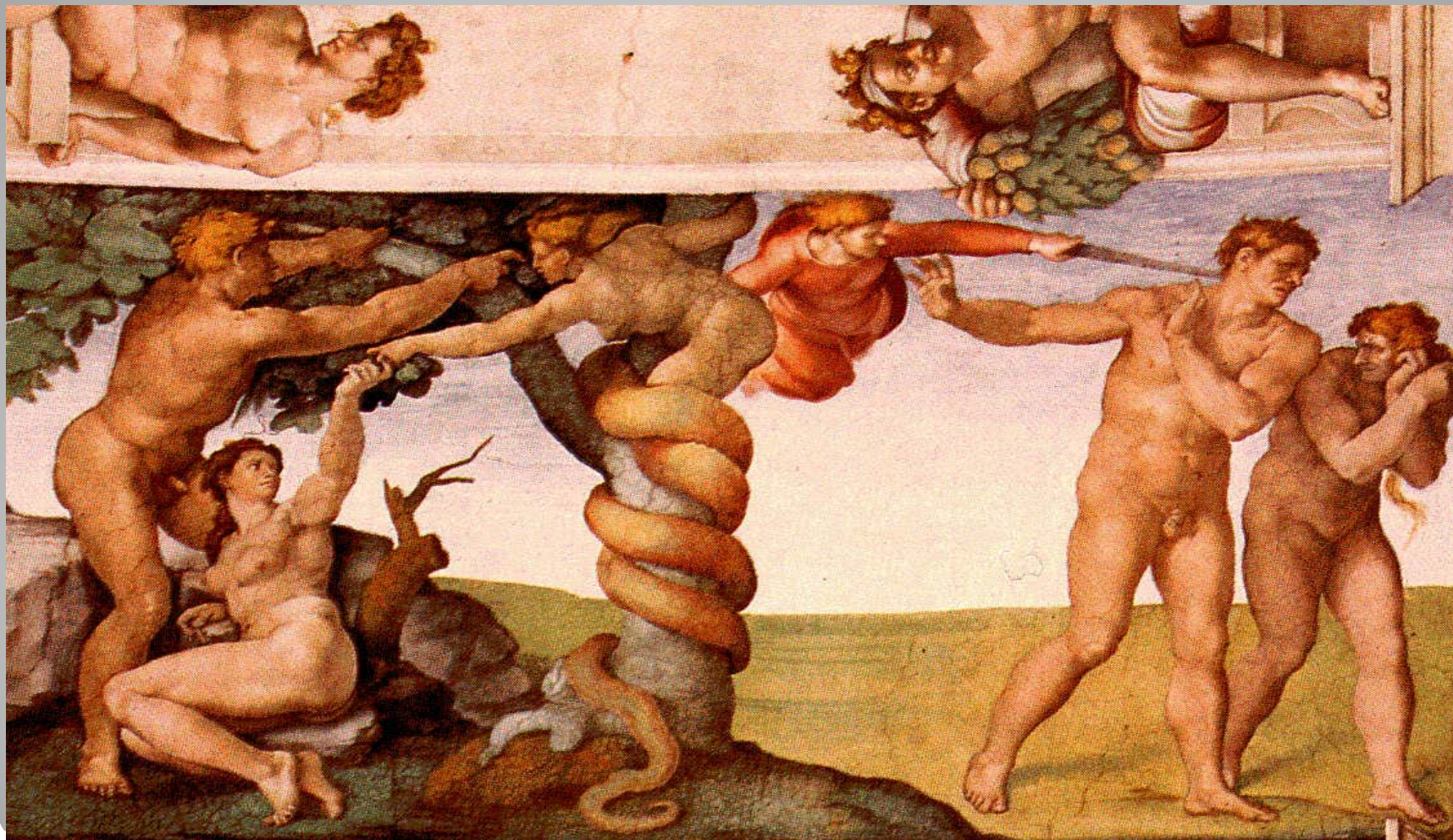
[구 성]

- 1) 아브라함을 부르심(12,1-3)
- 2) 아브라함과 이사악의 하느님
(12-26장)
- 3) 야곱의 하느님(25,19-34; 27-35장)
- 4) 요셉의 하느님 (37장, 39장-50장)

천지창조



선악과



카인과 아벨



노아의 홍수



바빌론의 지구라트



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많은 지구라트들이 남아 있다. 지구라트의

무너진 수많은 벽돌을 다시 쌓아서 복원.

후세인이 관광목적으로 복원한 것.

수 천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벽돌 한 장 한 장에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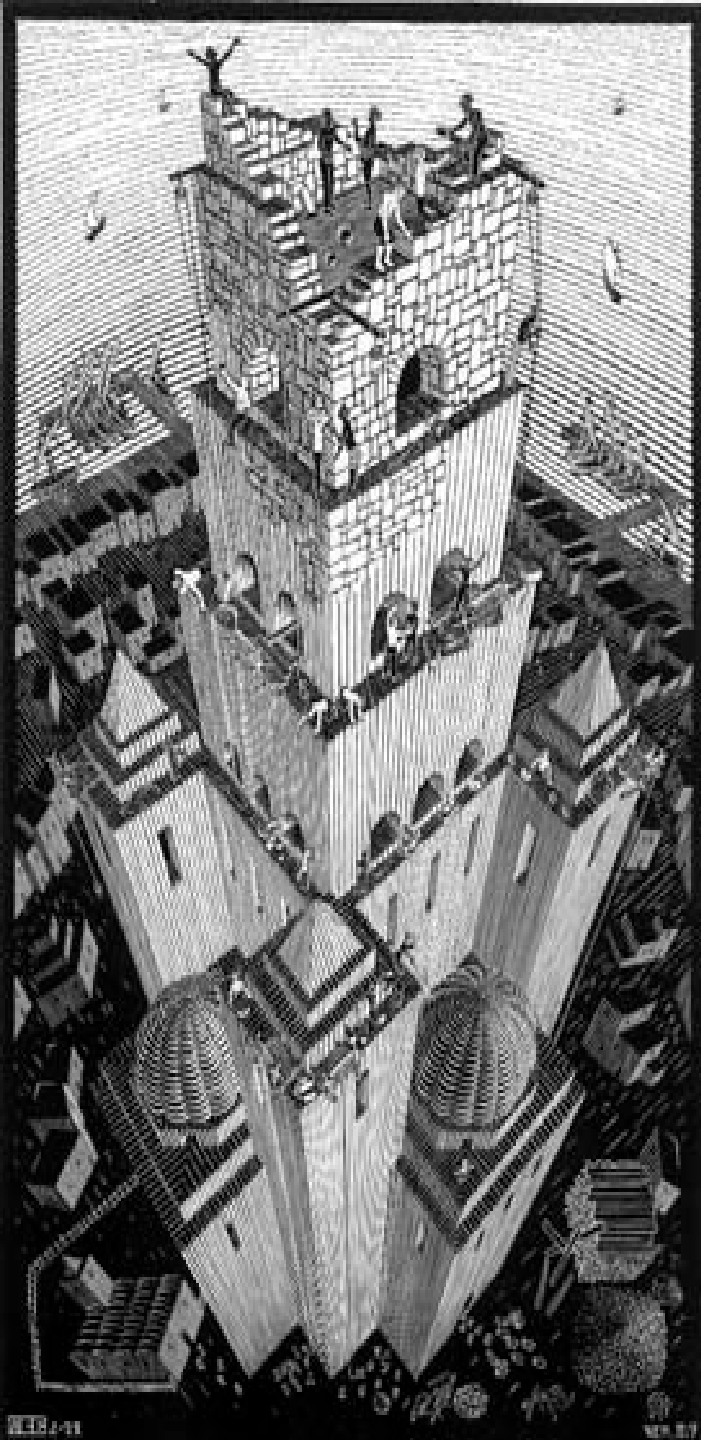
놀랍게도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,

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.

바로 '마르둑(Marduk)'이라고 쓰여 있다.



고대 최초의
통일제국을 만든 사람 . 니므롯이 통일제국을
만든 뒤 여러 가지 이질적인
종족들을 꼼짝
못하게 하고 쉽게 다스리기 위해 대대적인
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,
이와 같이 도시부터
만든 이후에 높은 탑을 쌓은 것.



메소포타미아의 풍요로운

도시 국가들은

-500년 사이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
모시는 수 백 개의 지구라트를 만들었다.
바빌론, 우르크, 우르와 같은 주요 도시들
은 도시 중앙에 거대한

지구라트를 갖추고 있었다.

현재 유적이 확인된 것만 해도 30곳 이상이다.

지구라트는 위로 올라갈수록 규모가
작아지는 단으로 된 피라미드 형태의 탑이다.

현존하는 최고의 지구라트는
우르에서 발견됐다.

이 지구라트는 기원전 1천2백년 경에
건설됐다.

5단으로 만들어졌으며 높이는 50m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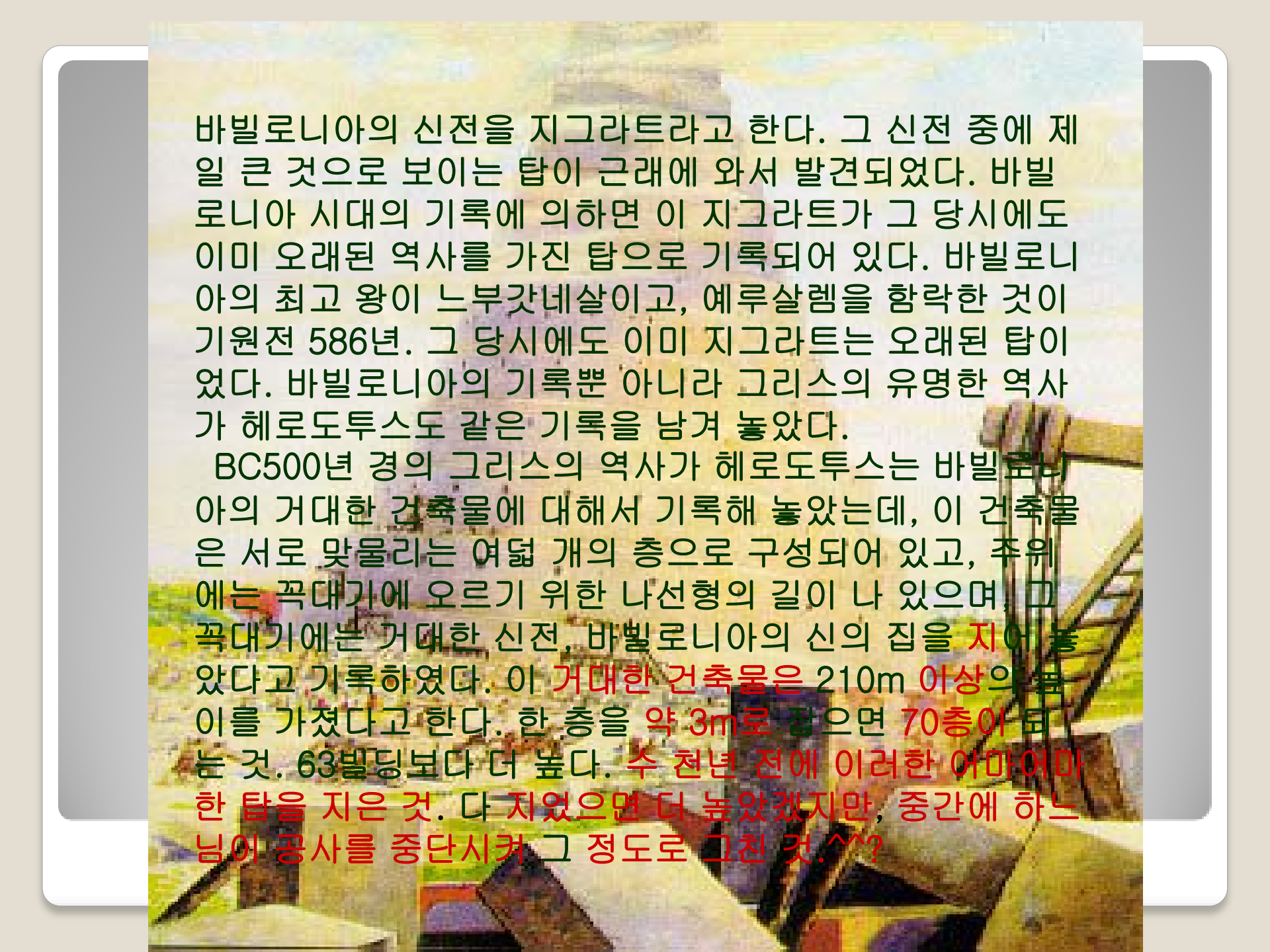
꼭대기에 있는 신전은 신관만이 출입
할 수 있고,

일반인은 1단까지만 접근이 허용된다.

이 지구라트에서 올려지던 특수 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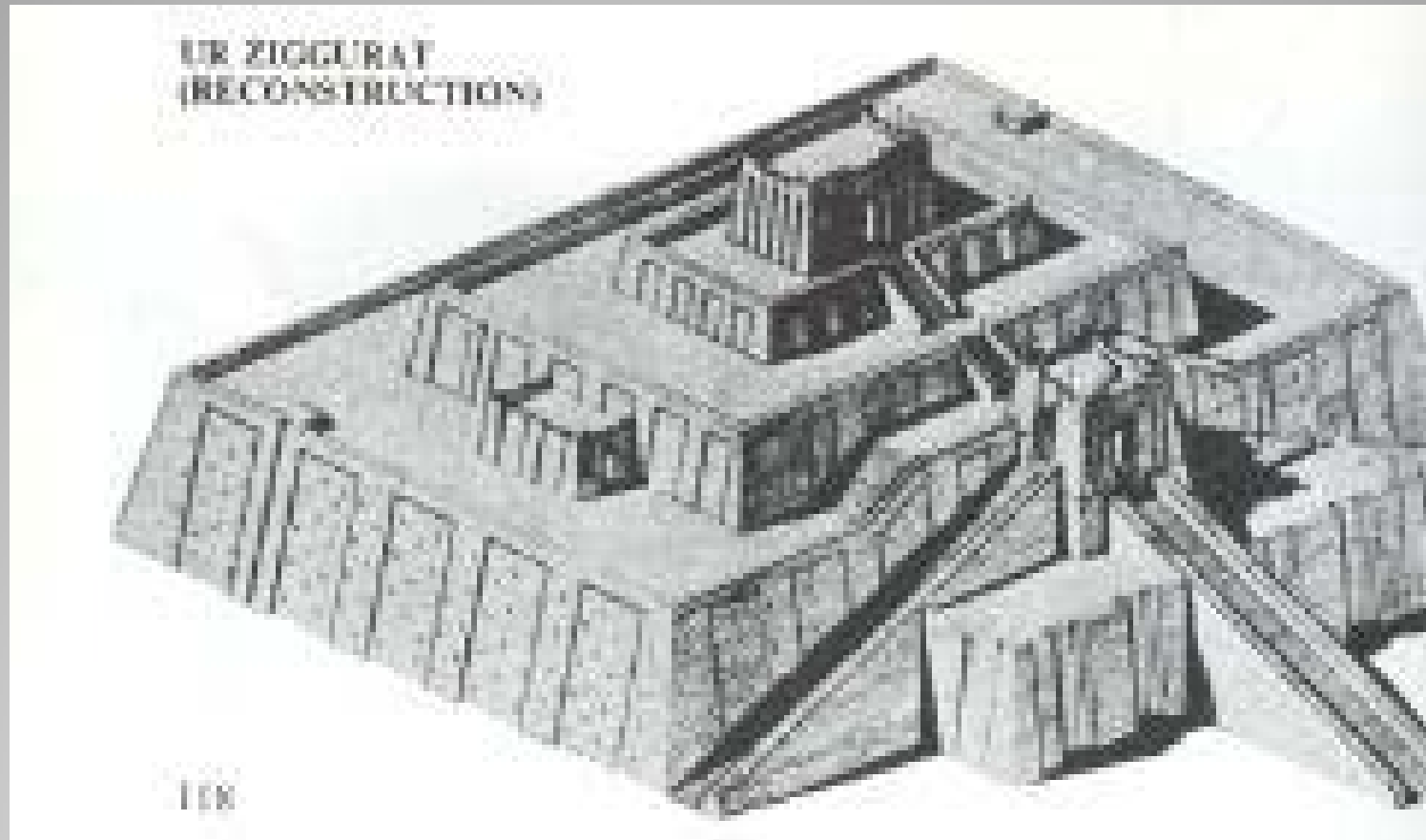
식에 대한 전설은 지구라트가

종교적인 용도로 사용됐음을 말해준다.

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photograph of the Ishtar Gate in Babylon, Iraq. It shows a section of the ancient city wall with its characteristic blue and gold glazed bricks. A large, arched gateway is visible, and a stone staircase leads up to it. The scene is set against a clear sky.

바빌로니아의 신전을 지그라트라고 한다. 그 신전 중에 제일 큰 것으로 보이는 탑이 근래에 와서 발견되었다. 바빌로니아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그라트가 그 당시에도 이미 오래된 역사를 가진 탑으로 기록되어 있다. 바빌로니아의 최고 왕이 느부갓네살이고,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이 기원전 586년. 그 당시에도 이미 지그라트는 오래된 탑이었다. 바빌로니아의 기록뿐 아니라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도 같은 기록을 남겨 놓았다.

BC500년 경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빌로니아의 거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, 이 건축물은 서로 맞물리는 여덟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, 주위에는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나선형의 길이 나 있으며, 그 꼭대기에는 거대한 신전, 바빌로니아의 신의 집을 지어 놓았다고 기록하였다. 이 거대한 건축물은 210m 이상의 높이를 가졌다고 한다. 한 층을 약 3m로 잡으면 70층이 되는 것. 63빌딩보다 더 높다. 수 천년 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탑을 지은 것. 다 지었으면 더 높았겠지만, 중간에 하느님이 공사를 중단시켜 그 정도로 그친 것.^^?



우르의 지구라트 스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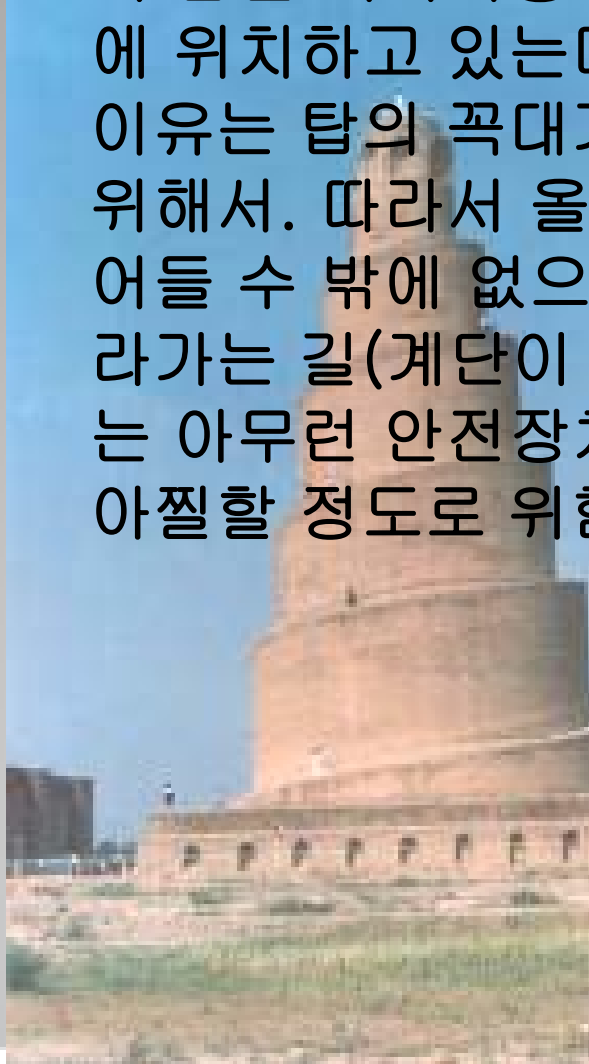


우르의 지구라트



거대한 지구라트

이 탑은 직사각형의 성벽으로 된 회교사원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, 모양이 달팽이처럼 생긴 이유는 탑의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.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점점 면적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달팽이모양이 된다. 올라가는 길(계단이 아니고 경사로)과 꼭대기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위에 올라가면 아찔할 정도로 위험하다.



**이사진이 52미터의
높이를 가진
SPIRAL MINARET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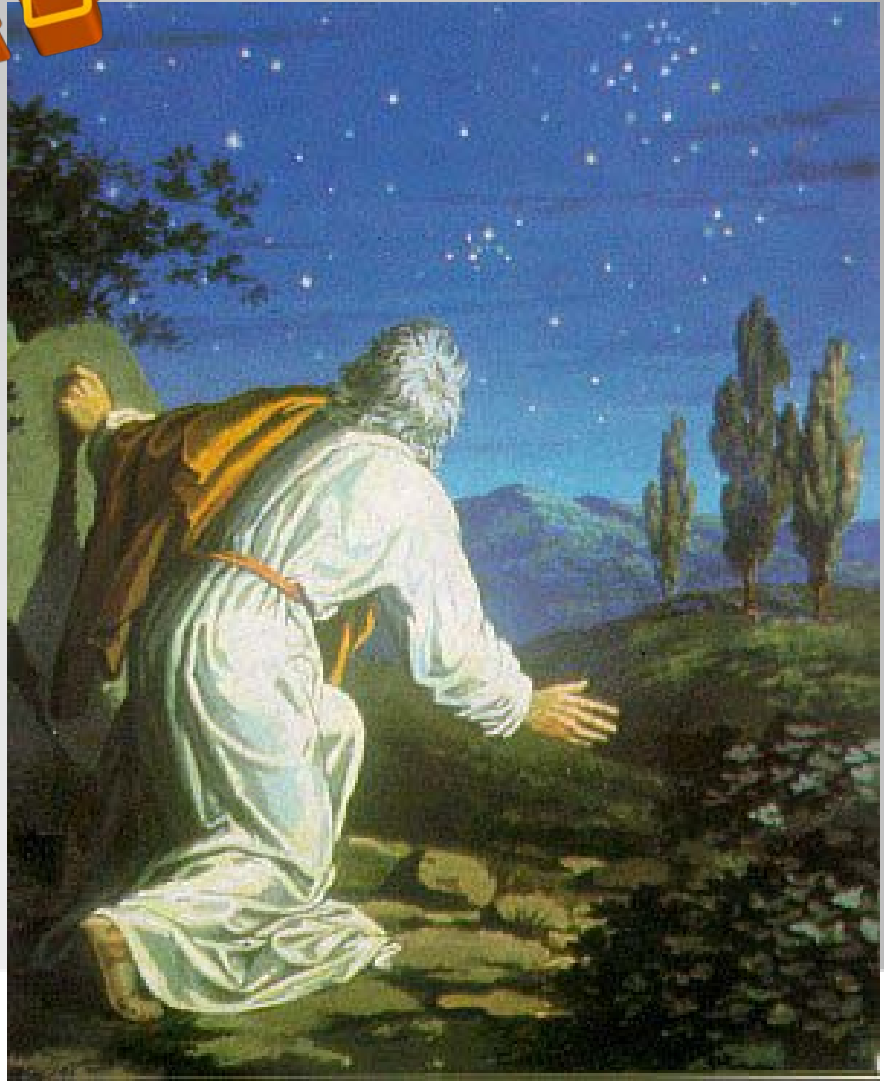
성조사
아브라함 설화 (12~25장)

사진으로 보기

믿음의 조상 아브라함

아브라함을 부르심

아브라함의 소명



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하느님



악자를 돌보시는 하느님



조건없는 믿음을
원하시는 **하느님**



야곱이 에사오의 복을 가로채다



야곱, 베텔에서의 꿈



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주



<http://blog.naver.com/sonyh252>

야곱과 라반의 계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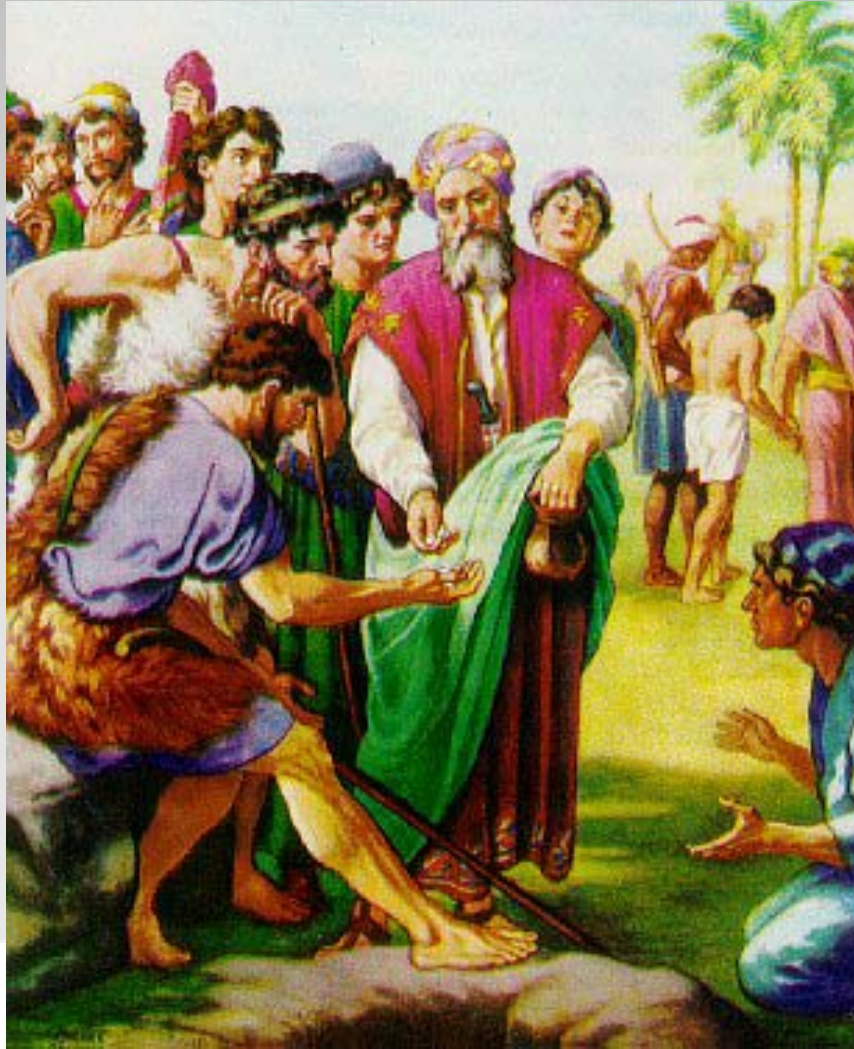
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다



야곱이 에사우를 만나다



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다



포티파르의 종이 된 요셉



꿈을 풀이하는 요셉



자신을 알리는 요셉



야곱을 만나는 요셉



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...



창세기 정리

- 성경의 주인공은 하느님
- 창조주 하느님, 유일신 하느님
-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
- 공평하신 하느님
- 침묵의 하느님

창세기 정리

- 선민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유배생활을 통해 신앙적인 깊은 성찰로 시작되었다.
- 하느님 신앙심 회복 =
(회당전례, 율법, 안식일 강조)
- 이스라엘의 분열 원인(솔로몬 시대의 이방여인과 이방신 유입-여인, 뱀)

창세기 정리

- 세상의 주권자는 하느님, -> 인간은 피조물
- 인간안에 스며든 죄로 인해 하느님, 형제, 이웃, 사회적인 죄의 확산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,
- 성조들의 하느님 =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 (아브라함-이사악-야곱의 하느님)